

[2001 기도축제] 셋째 날 : 기도와 영성

이상규 목사 / 본문 : 눅 22:39~46 / 페이지 수: 2

여러분, 우리는 고민도 걱정도 갈등도 없고 오직 '행복'만이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그런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험악한 세상을 산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으로 주님은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진실한 언어로 기도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기도 가운데 축복만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절한 고통이 없이는 절대로 철이 들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참된 행복을 알게 되는 것이고 죽음의 위기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만이 생명의 가치에 대해 노래합니다.

오늘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결정적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셨습니다.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종종 그곳에 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갔습니다. 하지만 이 날만큼 주님이 외로운 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호소하십니다. 주님은 멋지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영성은 솔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흠먼지에서 출추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옥의 밑바닥에서 절규할 죄인이었다는 사실까지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참된 영성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제자라면 주님처럼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것이 비록 고통일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포기로 열리는 하늘 문

우리는 매일의 고통을 피할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비로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고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 앞에서의 갈등에 솔직하셨습니다. 그분은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을 위한 사투를 하신 것입니다.

이 대목을 묘사한 히브리서 5장 7절에 주석가들은 '감정의 극치에서 터져 나오는 눈물로 절규하듯이 호소하셨다'고 해석합니다. 주님은 육체로 사는 동안에 영원한 죽음의 심연에서 견져내실 하나님 앞에 그 중심에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도를 끝없이 드리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바울은 때가 악하므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이 주님의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어떠한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그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이 여러분을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게 막는 무서운 걸림돌

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놀라운 세계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이런 기도로 한 단계 깊어질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기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임재하고 전능자가 여러분을 돕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